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대북제재 성패는 중국 지방정부 손에 달렸다

양 무 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모두 5회 채택되었다. 네 차례의 핵실험과 한 차례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가 그것이다. 개별 국가들의 독자적 대북제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보완한다. 그동안 대북제재 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의심 물자의 이동을 막는 금수 조치, 의심 선박에 대한 검색, 달러 거래를 차단하는 금융 제재, 개인·단체에 대한 제재 등이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이나 핵실험을 감행할 때마다 기존의 제재를 강화·확대해 왔다. 2087호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와 이중 용도(catch-all)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다. 2094호는 항공·선박에 대한 통제와 북한 외교관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대북제재 위원회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 수출이 2006년 기준 350만 달러에서 2010년 기준 200만 달러로 줄었다는 것을 성과로 내세운다. 북한 외교관들의 불법 거래 행위가 줄었다는 점도 성과로 명시한다. 특히 북한 전체 교역의 90%가 중국과 이루어짐으로써 다른 국가들이 북한과 교역을 하지 않는다는 점도 부분적인 성과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2013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 채택 이후 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193개국 중 42개국에 불과하다. 4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능력은 고도화되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끈 것이 아니라 징벌적인 제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개별 국가들의 독자적 대북제재는 미국, 일본, 한국이 주요 행위자이다. 미국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공산국가·반인권국가·반종교 국가·테러 국가·대량살상무기 확산 위험 국가 등 온갖 명목으로 북한을 제재해 왔다. 미국은 대북제재에 국제사회의 동참을 이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북한을 정상국가로 이끌지 못했다. 비핵화라는 외교 안보적 목적달성에는 더더욱 실패했다.

일본은 대북제재에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북한의 비핵화보다 납치 문제 해결이 우선이었다. 북한의 핵불능화에 대한 대가로 중유 20만t을 제공하지 않았다. 2014년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 간 스톡홀롬 합의서에 독자적인 대북제재 해제를 명시했다. 일본의 대북제재 조치는 대부분 이미 시행 중에 있다. 조총련계 인사들의 출입국 및 송금 액수를 줄였다 늘였다 하는 정도만 남아 있다.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는 실패했음이 드러났다. 정부는 5·24 조치로 남북 간 교역이 중단됨으로써 북한에게 연간 3억 달러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의 설명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의 자원외교가 북한을 우회함으로써 입은 손실은 30억 달러를 훨씬 초과한다.

지난 2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270호 내용은 포괄·상징·강력으로 요약된다. 개인과 단체의 대상 숫자를 추가하고 광물 수출과 같은 경제활동 분야도 포함시킨 것이 포괄적이다. 국가우주개발국 등 정부기관을 명시하고 불법 금융거래를 하는 외교관을 추방하는 조치는 상징적이다. 특히 항공유 수출을 통제하는 것도 상징적이다.

중국은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후 독자적인 제재 조치로 항공유 수출을 줄여왔다. 2012년 기준 연간 4만t에서 2015년 기준 1500t의 규모의 항공유 수출은 북한 공군에 대한 아픔보다 제재의 지속성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광물 수출 통제는 북한의 돈줄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로 평가된다. 2015년 기준 북한의 대중 광물 수출은 13억 달러이다.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에 대한 통제는 일종의 해상 봉쇄로 읽힌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의 채택 과정에서 중국은 '사드' 이슈를 잠재웠다. 미국은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이끎으로써 자존심을 지켰다. 북한은 평화 협정 논의의 명분 확보에 자화자찬할 듯하다. 그러나 한국은 손익계산에 보이지 않는다.

2270호의 성패는 중국의 손에 달려 있다. 중국은 북한과 1400km의 국경을 맞대고 있다. 원유·식량 지원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관장하지만 대부분 경제협력은 지방정부의 몫이다. 중국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북한식 '말폭탄'만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부끄러운 현실이다.

종교칼럼

예수님의 조상

조발그니
서산동성당 주임신부

마태오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한다. 예수님의 족보에 눈에 띄는 몇 사람이 있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았다(마태 1, 3). 본래 타마르는 유다의 며느리였다. 유다의 아들, 즉 타마르의 남편 에르가 죽자 유다는 차남 오난에게 형수와 결혼해 아이를 낳게 하나 오난이 주님 보시기에 악해 죽는다. 그러자 막내 셀라가 클 때까지 타마르를 친정으로 돌아가 살게 한다. 셀라가 컸음에도 유다는 타마르를 불러들이지 않았다. 어느날 유다 일행이 타마르 친정 근처를 지난다는 말을 들은 타마르는 과부 옷을 벗고 너울을 써서 창녀로 변장한다. 유다는 타마르가 창녀라 생각하고 관계를 맺었고, 이리하여 태어난 아이가 페레츠와 제라였다(창세기 38장).

다윗은 부하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마태 1, 7). 다윗은 부하 우리야의 아내 밧 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반해 탐했다. 이후 밧세바는 임신을 했다. 다윗은 자신의 악행을 덮으려 전장에서 돌아온 우리야를 집으로 돌려보내 밧 세바와 관계를 갖도록 했다. 하지만 우리야는 동료들과 머물며 집에 가는 것을 거부했다. 결국 다윗은 우리야를 전투가 가장 심한 곳 정면에 배치했다가 그만 남겨 두고 후퇴하라는 편지를 요압에게 보내 우리야를 죽게했다(2사무 11장).

이후 바빌론 유배 전 예수님의 조상 중에서 훌륭한 인물은 요시아, 요탐, 히즈키야, 우찌야 정도이고, 나머지 조상들은 전부 우상숭배를 했던 이들이었다.

더 서술할 수 있지만 지면이 한정돼 여기서 멈춘다. 왜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에 지우고 싶은 조상들의 이름을 그대로 적었을까? 그리고 왜 성경은 조상들의 못된 행실 역시 지우지 않았을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잘못된 조상들 속에서 태어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일까? 아마도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그와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것은 아니었을까?

최근 대테러 방지법에 관해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이 있었다. 처음으로 오랜 시간 보게 된 국회방송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힘이 실어지는 국정원에 대한 걱정이 들었다. 국정원에 대한 걱정은 이제까지 국정원을 통해 일어난 사건들 때문이다. 굳이 국정원 전신인 안기부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은 댓글로 여론 조작을 했다. 원세훈 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심리전단팀을 꾸려 SNS, 인터넷 게시판에 야당과 전라도 비하 댓글을 퍼나르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하도록 지시했다.

2013년 1월 유오성씨는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게 넘겼다고 검찰에 기소됐다. 2015년 10월29일 대법원은 유오성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했다. 반면 유씨의 재판에 제출할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은 유죄판결을 했다.

국정원의 위와 같은 과오는 분명 잘못된 것이고, 판결, 증거 등으로 입증됐다. 그러나 단 한번도 국정원은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고 개인적 일탈로 기록했다. 분명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조상들의 과오 역시 개인적 일탈일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에 그들을 기록한 이유는 조상들을 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심인 것이다.

야당이 최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했던 이유도 무소불위 국정원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대테러방지법 9조에 의하면 국정원은 대공 방첩분야가 아닌 테러의심자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감청,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이용법에 따른 금융 정보 수집이 가능해진다. 또 테러위험 인물의 개인정보와 위치 정보를 관련 사업자에 요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보호하는 민감정보까지 모두 포함된다.

지난 국정원의 과오가 개인적 일탈이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법이 없었음에도 해킹, 조작이 일어났었다. 또한 적어도 국정원이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했다면 국민들이 이처럼 불안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의 족보가 조상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말라는 경고라면 국정원의 과거 사건에 대한 인정과 사과 또한 국민에게 국정원의 자정을 위한 노력이라고 읽혀질 것이고, 국민들의 국정원에 대한 의심은 작게나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기 고

옻나무 이야기

윤 병 선
전남도 산림산업과장

지구상에는 대략 3조 400억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다고 한다. 55만종으로, 식물 자체에 90%가 독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중에서 약 10% 정도만 우리가 식·의약으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옻나무가 대표적이다. 옻나무는 옻나무과에 속하는 낙엽교목으로 키가 20m 전후로 자란다. 원산지는 중국에서 히말라야에 걸친 지역이며, 한반도 각처에서 자라거나 재배된다. 학명은Toxi coden→dron vernicifluum 이며 속씨식물이다.

옻은 '본초강목'(本草綱目)과 '동의보감'(東醫寶鑑)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옻 한방 백숙(白熟)은 1795년의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라는 문헌에 죽수라상 식단으로 기록돼 있다. 옻나무에는 개옻과 참옻이 있는데 반드시 참옻으로 조리해야 한다. 엄나무와 황기를 넣어 2시간 정도 푹 끓여 먹는다. 주성분은 우루시올(urushiol)이라는 것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생명공학연구소 관상수 박사팀은 지난 1997년 국내산 참옻의 수액에서 우루시올 성분을 찾아냈다. 우루시올은 아가페놀, 수분, 고무질함질 스물, 산화 효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본어 키우루시(옻나무)와 우루시(옻액)에서 연유한 페놀을 의미한다.

나무껍질에 상처를 냈을 때 나오는 진을 옻칠이라고 한다.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것이 생칠(生漆)이다. 옻칠은 전통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100% 천연 도료이다. 옻칠을 하지 않은 목재는 비바람과 습기에 의해 썩고, 변색은 물론 미관에 좋지 않다. 그래서 옛날부터 조상들은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옻나무의 수액을 채취한뒤 정제해서 목재에 발라 방부·방수·방충·항균작용을 하도록 했다. 팔만대장경 목판들이 잘 보존된 원인이 옻 때문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옻에는 환경호르몬을 일으키는 성분이 없다. 옻칠의 색채는 깊고 멋있다. 그 깊은 맛을 다른 재료로는 따라갈 수 없다.

남원은 옛날부터 지리산에서 자라는 오리나무를 이용하여 목기를 만드는 산업이 크게 번창하였다. 목기에는 반드시 옻칠을 했다. 옻칠을 한 현대식 건물로는 완도수목원에 있는 산림박물관이 유명하다. 연건평 1216㎡의 전통 한옥 건물인데 중요무형문화재 옻칠장의 자문을 받아 3억8천만원을 들여 옻칠 도포공사를 하였다. 여기에 들어간 옻의 양만 300kg이 넘는다.

고흥군 동강면에 황씨라는 분이 있는데 옻칠의 진가에 푹 빠져 있다. 그는 옻칠(漆)을 활용하여 인건비와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순식물성 친환경 옻 도료를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했다. 8~9년된 야생 옻나무를 잘라낸 뒤 볶아 생칠과 화칠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지난 2011년 4월 준공된 국회 사랑채도 옻칠로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다. 한옥 건물로 그동안 색상이 많이 변했는데 옻칠을 통해 멋진 미관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곡성군은 옻칠과 식품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5년부터 100만 그루의 옻나무를 509ha에 심었다. 적지적소에 식재된 나무는 벌써 수확시기를 맞아 참나무작목반과 '곡성참옻유통센터'에서 상품화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다.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한다면 '숲 전남' 소득 숲을 대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옻나무는 산에서 소득을 찾을 수 있는 소득 숲으로, 먼 훗날을 내다보고 긴 호흡으로 심고 가꾸어 산림자원으로 육성했으면 한다. 그리고 옻 생산 기술을 개발해 한옥마을의 목재에 옻칠기법을 더한다면 아름다운 건축미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옻은 건강식품으로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만큼 적극 활용해 신약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무등산 방송·통신탑 이전 논의도 서둘러야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오늘로 꼭 3년을 맞았다. 그러나 정상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 한 편에 아쉬움이 남는다. 국립공원에 걸맞지 않은 방송 송신탑과 통신탑이 산 중턱에 볼썽사납게 솟아 있기 때문이다. 군부대도 아직 옮기지 못한 상태다.

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시민들은 무등산 태초의 자태를 그리워했다. 언제나 후덕한 산세로 보는 이들을 따뜻하게 품어 주는 무등산에 철근과 콘크리트 덩어리라니.

가장 서둘러야 할 일은 장불재와 중봉·북봉의 방송 송신탑과 통신탑 이전이다. 통신기술이 뒤떨어졌던 시절에야 지대가 높은 곳을 찾다 보니 무등산에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방송·통신탑은, 이제 더 이상 그 자리를 고집할 이유가 사라졌다. 이미 장성 불태산이 이전지로 적합하다는 용역까지 나온 상황이다.

하지만 시설물을 운영하는 방송 3사와 KT는 어려운 재정 형편 등을 내세우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이전 사업은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들 기관이 시에 지급하는 무등산 1㎡의 1년 사용료가 70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져 시민들의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공군 부대 이전은 부지 확정 문제가 남긴 했지만 주둔 50년 만인 지난해 첫 단추를 꿰었다. 원효사 상가도 대체지가 정해지는 등 복원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이런 마당에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방송사와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 통신사가 국립공원 제 모습 찾기에 이런저런 핑계로 주저해서야 되겠는가.

물론 8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비용이 걸림돌이긴 하다. 하지만 그동안 무등산에 시설물을 설치해 많은 이익을 취한 방송 통신사들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그리고 환경부는 환경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이전 비용을 적절히 분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환경부와 방송·통신사는 한시바삐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것이다.

'빛 바랜' 나주 천연염색 문화관 이유 있다

나주 천연염색 문화관의 색이 바래고 있다. 안일한 운영으로 성과가 저조하다는 얘기다. 이는 염색 분야의 비전문가인 공무원 출신 인사를 관장으로 영입한 이후 벌어진 일이어서 또 다시 리더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실제로 천연 염색 전문가인 장 모 관장이 재임하던 2010년~2012년까지 3년간 사업 실적은 23회 31억8300여만 원, 판매장 수익은 14억7480만 원이었다. 반면 나주 시청 국장 출신인 현 이 모 관장의 재임 기간(2013년~2015년)의 사업 실적은 22회 16억6530여만 원으로 전임 관장 시절에 비해 무려 15억1770원이나 급감했다. 판매장 수익금도 13억 3160만 원으로 1억 원 이상 감소했다. 전시 교육 횟수도 줄었다.

공모 사업 유치 실적을 보면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다. 전임 관장의 경우 향토산업 육성사업 30억 원, 농림 바이오기술 연구사업 21억6500만 원 등 총 51억6500만 원을 유치했다. 하지만 현 관장은 재임 기간 동안 유치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나주시는 관장 연봉 6300만 원을 포함한 직원 9명의 인건비로 매년 3억1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실 이 같은 문제는 이미 예견된 일이다. 지난 2013년 관장 공모 당시 인사권을 쥔 전임 나주 시장이 전문가 채용 요건을 어기고 공무원 퇴직자를 낙하산으로 임용했기 때문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염색문화관 운영을 관리 감독해야 할 나주시가 형식적인 감사로 일관해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문화예술기관의 수장은 조직의 위상과 시민들의 문화 마인드를 끌어올리는 막중한 자리다. 그런 만큼 나주시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영입해 공적 의무를 수행토록 하는 한편 이번 비전문가 관장의 사례를 인사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귀향

"내 몸은 떠나왔지만 내 마음은 아직도 거길 떠나오지 못했어!" 영화 '귀향'이 끝나 갈 무렵,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 홀로 살아남은 영옥이 '귀향굿'을 하는 무당 은경의 어깨를 붙잡고 통곡하며 쏟아낸 말이다.

영화 속에서 영옥이 눈물 젖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무당 은경의 얼굴이 아니다. 영옥이 행여 놓칠까 봐 꼭 부여잡은 것은, 무당 은경에게 빙의한 정민이다. 정민은 70여 년 전 지옥 같은 일본군 위안소에서 영옥과 함께 고초를 겪다 도망치던 중 일본군의 총탄에 맞아 숨졌다.

영화에서 무당 은경은 굿을 하며 두 차례 빙의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 번은 딸이 오매불망 그리워하는 아버지로, 그리고 또 한 번은 위안부로 끌려갔다 죽은 정민으로.

우리 전통문화에서 굿은 '신과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가정 또는 한 마을의 한(恨)과 갈등을 공개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다. 그 굿을 주재하는 무당은 저승과 이승, 과거와 현재라는 이질적인 시공간을 단숨에 뛰어넘어 산 자와 죽은 자를 만나게 해 주는 매개자다.

특히, 굿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빙의'는 산 자와 죽은 자가 '직접' 만나 한(恨)을 풀 수 있게 해 주는, 우리 무속문화의 독특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영화에서 딸과 아버지, 그리고 영옥과 정민이 서로 만나 한을 풀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당의 능력이자 빙의의 기능이다.

어두컴컴한 극장 스크린 앞에 앉아 옆 사람 눈치를 보며 눈시울을 훔치던 관객들이 참지 못하고 그만 울음을 터뜨리는 때도 '죽은 자와 산 자가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이다. 무당 은경을 통해 '죽은' 정민과 만난 관객은, 위안부로 끌려간 우리 누이와 어머니, 할머니들에게 비로소 "지켜 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굿을 한다고, 후손들이 사과를 한다고, '바다처럼 깊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한이 온전히 사라지진 않을 터다. 가해자인 일본 정부는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울고 나면 새로 살아갈 힘과 의지가 생겨나는 법이다. 일본의 완전한 사죄를 받아 낸 뒤 '귀향굿'을 벌이는 것이 살아남은 우리의 몫일 것이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편 집 부 2200-649 〈FAX 222-4938〉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부 2200-661
〈대표 FAX 222-4918〉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